

대행 스님

실험하고 체험하면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라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런데 그 컴퓨터와 탐지기, 즉 컴퓨터는 과거를 짊어지고 나온 겁니다. 과거에 살던 것이 모두 입력이 돼 가지고 나온 자동 컴퓨터입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그게 아니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나요? 악도 선도 속상하는 것도 또 머리가 틔는 것도 전부 거기서 나오는 거니깐요. 사는 대로 입력이 돼 있죠. 자기가 아는 것이 그대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묘한 법이죠. 묘한 법이라고 할 수밖에요.

그래서 그 다섯 가지가 여러분한테 다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어떻게 말을 해 드려야 이것이 증명이 되나 하고 이렇게 저렇게 비유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이 자동 기계를 굴리려면 따로이 이 오신통이 돌아가는 바깥에서야만이 이걸 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우린 그대로 바깥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오는 대로 안에서 일어나는 거 바깥에서 오는 거, 이것이 바깥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닌, 자기가 그대로 한생각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잠자코 있는 동안에 생각을 좀 해 보세요, 어떤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요. 그래서 심봉이라는 것은 그대로, 누진(漏盡)이 레이더망이라면 레이더망을 받친 심봉은 그 오신통과 레이더망과 같이 전부 굴려도 이거는 움쭉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손가락을 하나 들어 보이시고) 하늘을 받쳐, 천지를 받친 바로 평발로써 받친, 뭐라고 그럴까? 불기둥이라고 그럴까? 불은 하나지 둘이 아니니까. 물도 하나듯이 말이에요. 물은 흘러가는 것, 흘러 도는 걸 말하고 불은 움죽거리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진리는 돌고 돌아 불기둥은 하늘을 받치고 움쭉도 안 한다. 변화가 없고 그대로 밝아 있다. 그대로 넉넉하고.

그러니 거기에 붙어서 돌아가도 움쭉을 안 해도 항상 이렇게 돌아요. 우리 마음이 넉넉하면 심봉이 돌아가는 것이 녹이 안 슬고 착착 돌아갑니다. 기름이 주어지니까. 넉넉한 마음은 기름을 주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심봉에 기름을 주는 거와 같아요. 그리고 넉넉지 못한 사람, 소견으로 마음을 쓰는 사람은 이게 자꾸 돌리질 못하기 때문에 녹이 슬어. 그리고 빡빡해. 잘 돌아가질 않아요. 그와 같은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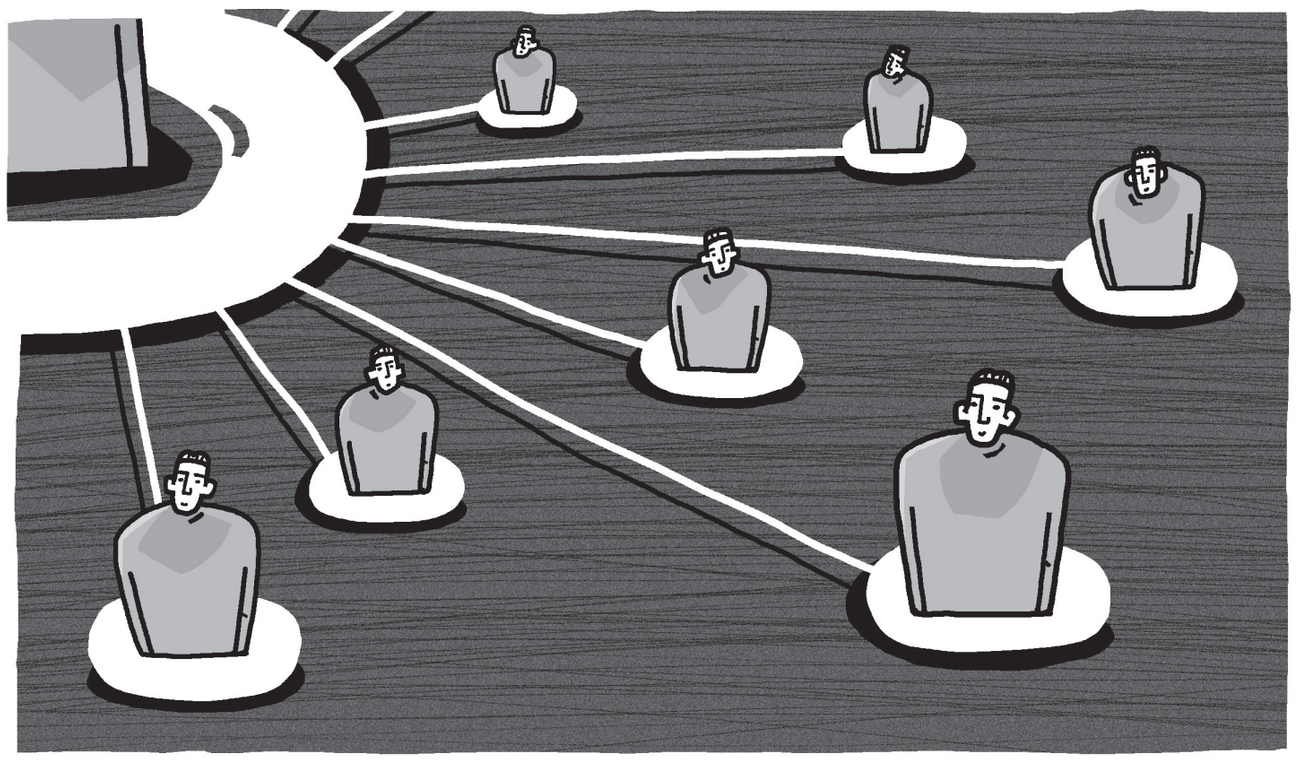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도 기계를 잘 아시죠? 만약에 차를 끌고 다니는 데도 바퀴가 영 굴러가지 않아서 그냥 두면 그 중심인 심봉이 잘 안 굴러가게 되죠. 양면으로 딱 조여 놓고선 이게 그냥 돌아가도 이 중심 심봉은 통 움죽거리지 않고 바깥에 있는 것들만 돌아가죠. 바깥에 붙어 있는 그 다섯 가지의 수레바퀴가, 즉 불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물바퀴라고 해도 좋고 불바퀴라고 해도 좋고 보통 그런 수레바퀴라고 해도 좋죠. 그렇게 돌아가는 이 자체, 바로 그것을 바깥에 서서 돌릴 수만 있다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돌릴 수 있게끔 해 드리려니까 오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거기다 (가슴을 짚어 보이시고) 입력을 시켜라 그런 겁니다. "거기다 놔라." 그러니까 또 놓는 걸 몰라서 도대체 어떻게 놔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면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나중에 써먹으려고 입력을 번호대로 시켜 놓고, 또 모두 입력을 시켜놔야만이 그놈의 게 전부 일사천리로 해 나갈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하고 있죠, 그렇게 자동적으로요.

그런데 그 기계가 그렇게 비싸다고 합디다. 허허허.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도 비싼 거예요. 그보다 더 비싼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이고 여러분입니다. 남들은 어떨지 몰라도 자기 가정 속에서는 대들보예요. 그리고 자기 2세고요. 그런데 뭐,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테두리가. 하다못해 제비 새끼들도 테두리가 있고 둥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야 되겠으며 또 집 속에 식구들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하다 이겁니다. 모두가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니 그렇게 입력을, 들어오는 대로 용도대로 잘된 건 감사하게 입력을 해 놓고 또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것도 거기서 한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거 아니야? 거기서 해봐!' 하고 거기다 입력을 해 놓으면 그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실험하고 체험하면서 당당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라는 거지 항상 남한테 빌어서 먹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마음이 둘입니까? 셋입니까? 하나도 없는 것이 너무도 천차만별로 돌아가면서 마음을 쓰기 때문에 하나도 없다는 거며 공했다는 거며, 움죽거리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보는 것도 그렇고. 항상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 '공했다'라고 부처님들이 말씀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 없다는 사람도 있고, 비었다는 사람도 있고, 공했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은 있지만 그것은 하나에 속해. 하나의 뜻에 속해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 드려도 참…. 그러면 그 다섯 가지가 붙어 돌아가는데 레이더망이 제일 위에 붙죠. 누구든지 주장자를 가지면 거기다가 용머리를 갖다가 떠억 붙여서 주장자를 만들죠? 그게 무슨 뜻이냐? 내 주장자 하나로 인해서, 이 주장자를 깊은 물로 비유한다면 용이 들고 나고 들고 나고 춤을 추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 이 레이더망이 바깥에서 오는 거 안에서 일어나는 거를 전부 보고를 해 들이면 안의 컴퓨터에 입력이 돼 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잘해야만 대뇌로 해서 저 컴퓨터에 입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좋게 입력을 하시라 이겁니다. 왜냐? 꿈을 꾸고도 이것은 '아이구! 꿈이 언짢아. 언짢으니까 이거 무슨 탈이 또 날 거야. 이거 어떡하면 좋은가?' 아이, 요렇게 생각을 하니 고게 고렇게 입력이 돼 가지곤 좋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웃으면서 입력을 할 텐데도 불구하고, 하늘이 무너진대도 '아이구, 네가 있다면 하늘이 무너진들 어떻고 땅이 무너진들 어떠랴.' 하고, 나 이 자체가 죽고 살고 하는 것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놔 버려요! 그냥, 생각이 없어요. 지금 금방 죽는대도 생사를 다 놔버려요!

보살은 생사를 버리지 않죠. 그런데 중생들은 생사에 끄달리거든, 좋아하고. 죽고 사는 거 아주 그냥 그거에 얽매이죠. 그래서 마구니나 외도들은 소견을 좋아하지만 보살은 소견에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죽어야지, 죽지 말아야지' 하는 거를 둘 다 놓으란 말이에요. 나중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까짓 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요? 그러니까 보살은 버리지 않는다 이거죠. 양면을 다 버리지 않는 거죠, 놔 버리니까.

여기에서 또 인과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고걸 어떻게 해야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리죠? 그것은 입력하는 것만 잘하시면 돼요. '내가 이다음에 죽더라도 아프지 말고 죽게 하는 것도 너밖엔 없다.' 이러면 입력이 돼요. 여러분이 소신껏 맘대로 쓸 수 있는 것인데도 아, 이건 그냥 아주 절벽이야, 절벽! 그러곤 나한테 와서는 "집을 사야 할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날짜를 어떡했으면 좋겠습니까?" 아, 이러고 물을 때는요, '야, 내가 이날까지 이럭하고 있었던 본의가 뭐 있나?' 하는 생각이 나고 눈물이 주루루 흐른단 말입니다. 나를 좀 덜 울리려면 여러분이 좀 더 그 철벽을 뚫으세요, 좀! 아주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입력하는 것이라는 걸 지금 얘기해 드렸습니다. 오신통이 무슨 이럭하고, 지난번에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안 되겠어요. 그대로 그냥그냥 얘길 해 드려야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자력이나 전력이나 통신력이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무한량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레이저 그, 광력에 대한 그것을 안에서 받아서 레이저 치료를 하

☞ 22면으로 계속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가 아니다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